

체험관광부터 힐링까지... '두근두근' 태백

세계 첫 안전체험관 365세이프타운 가상헬기·구명보트 등 박진감 넘쳐 함백산 오르면 활짝 핀 상고대 절경 폐경도 테마파크 등 즐길거리 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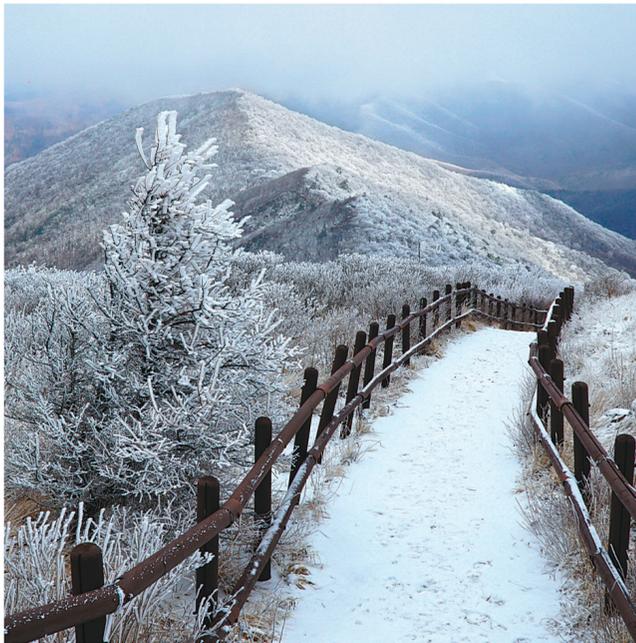
해발 평균 800m, 태백은 서울 관악산(632m)보다 높고 북한산(832m)과 맞먹는 높은 곳에 있다. 깊은 산속에 오롯이 자리잡은 도시여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천혜의 자연 풍광부터 각종 체험관광에 이르기까지 의외로 볼거리가 풍부하다. 특히 이맘때 찾아가면 고원지대답게 포근한 바람이 불다가 어느새 눈발이 휘날리는 등 봄과 겨울 두 계절의 정취를 동시에 접할 수 있다는 점도 태백의 매력이다.

●국내 최대 안전체험 테마파크

태백의 365세이프타운은 각종 재난과 재해를 소재로 교육과 놀이시설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안전체험 테마파크다. 지진, 산불, 풍수해, 설해, 화재 등의 재난·재해와 대테러, 생활안전체험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테마로 인해 조금 따분한 교육시설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4D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각종 체험들이 제법 재미있다.

특히 가상 소방헬기, 구명보트에 탑승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산불체험이나 풍수해체험관은 어지간한 놀이공원 어트랙션보다 더 박진감과 속도감이 있다. 일상서 자주 접하지만 의외로 사용법을 잘 모르는 탈출용 완강기나 소화기도 3층 건물 높이에서 실제로 체험하거나 비디오편 게임을 도입해 지루하지 않다.

야외에도 케이블카를 타고 트리트랙, 썰라인, 번지점프 등을 체험하는 켈런지월드와 교통안전체험관 등이 있어 아이들과 방문하면 한나절을 보내기에 딱 좋다. 2만2000원의 자유이용권을 구매하



4월 초의 봄날임에도 나뭇가지마다 상고대가 하얗게 피어난 함백산(위)과 실제 재난 현장을 유사하게 재현한 4D 시뮬레이터 구명보트를 타고 인명 구조 체험을 하는 365세이프타운의 풍수해체험관. 태백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면 이중 2만 원을 태백시에서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캐시백 해준다.

●4월에 만난 새하얀 상고대

1573m의 함백산은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높은 산이자 설악산, 오대산을 거쳐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주능선에 위치했다. 높이에 걸맞게 산세는

웅장하지만 만항재를 통하면 정상까지 오르기가 다른 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한 곳이기도 하다.

만항재는 함백산 줄기가 태백산으로 뻗어 내려가다 잠시 숨을 죽인 곳이다. 해발 1330m로 우리나라에서 포장도로가 있는 고개 중 가장 높다. 원래 함백산과 만항재는 다양한 야생화로 유명한 봄

꽃 명소이지만, 겨울의 여운이 남은 요즘 같은 때는 산 정상에 하얗게 물드는 상고대(공기 중 수분이 나뭇가지 등에 서리로 내려 눈꽃처럼 피는 것)가 종종 등장한다.

이번 태백여행에서도 전날부터 눈발이 날리는 등 날씨가 예사롭지 않더니 아침에 함백산에 올랐을 때 새하얀 상고대가 주먹 균락을 덮은 장관을 마주했다. 맑은편 정선 쪽은 봄날의 초록빛으로 물드는데 함백산 일대에만 하얀 얼음꽃이 가득 피는 모습은 이루 말하기 어려운 절경이다.

●폐경도와 폐철도가 관광 테마로

통리탄탄파크는 한보관광공업소의 폐광부지와 폐경도를 이용한 테마파크로 폐경도를 활용한 2개의 터널형 전시공간이 있다. 다양한 일루미네이션 시설과 IT콘텐츠를 활용한 터널을 천천히 걸으면서 한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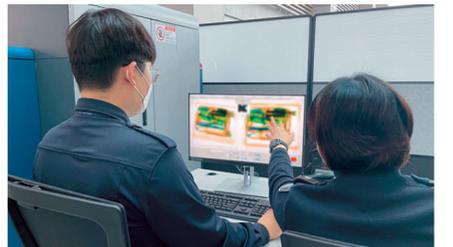
통리탄탄파크에서 2km 정도 떨어진 오로라파크는 2012년 폐쇄된 통리역 철도 부지를 활용한 테마파크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추전역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높이 49m인 육각형 눈꽃 전망대는 태백 유일의 타워전망대다.

●몽토랑 산양목장과 구문소

몽토랑 산양목장은 방목형 산양목장이다. 양 목장은 여러 곳이 있지만 산양이 있는 곳은 드물다. 산양은 젓 생산을 목적으로 도입된 가축으로 무척 온순하다. 불임성이 제법 있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먹이를 주는 재미가 있다.

구문소는 한강 발원지 검룡소,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 한강 낙동강 오십천의 분수령인 삼수령 등이 있는 '물의 도시' 태백의 또 다른 명소이다. 황지서 나온 물줄기가 큰 산을 뚫고 지나면서 거대한 천연석문과 깊은 소를 만들었다.

태백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인천공항 스마트 보안검색장에 도입 예정인 CT X-ray로 보안검색 교육을 받고 있는 보안검색요원. 사진제공 | 인천공항공사

전자기기 꺼내지 않아도 정밀 검색 인천공항, 스마트 보안검색장 추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스마트 보안검색장' 구축을 추진한다.

9월 중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번 출구장에서 '스마트 보안검색장'을 시범운영하고 이후 2025년까지 제1, 2여객터미널의 모든 출구 및 환승장을 스마트화 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보안검색장에는 신체검색용 원형검색장비, 휴대물품 3D검색용 CT X-ray, ATRS(자동바구니회송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원형검색장비는 기존 문형장비와 달리 비금속물질까지 탐지 가능하고, 인천공항에 첫 도입되는 CT X-ray는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꺼내지 않아도 정밀검색이 가능하다. ATRS는 검색용 바구니를 자동으로 회수해 살균 배부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앞 승객 검색이 완료될 때까지 차를 기다렸으나 앞으로는 물품 투입을 마친 승객이 먼저 보안검색을 받는다. 또한 휴대물품 판독은 검색대별 개별판독에서 별도장소의 통합판독으로 일원화된다.

김재범 기자

하나투어, 해외여행 중 확진 고객 지원 나서

하나투어는 기획여행상품 고객이 해외여행 중 코로나 19에 확진돼 현지 격리를 하면 그로 인한 비용을 프리미엄, 스탠다드, 세이브 등급별로 구분해 지원한다. 현지 격리로 귀국일을 변경하면 1회 항공권 재발권을 지원하고 귀국일 변경이 불가하면 신규 발권한다.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는 100%, 세이브는 50%를 지원한다. 숙소는 1박당 프리미엄 150달러, 스탠다드/세이브 100달러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식사는 회당 프리미엄 20달러, 스탠다드 15달러, 세이브 10달러 내에서 1일 최대 3식을 지원한다.

강원랜드, 친환경 ESG경영 그린어스 선정

강원랜드가 2022년도 '친환경 ESG 경영 그린어스'로 선정됐다. '그린어스'는 친환경 경영 실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브랜드, 상품 등을 한국경영인인증원이 평가하고 한국환경경영학회가 검증하는 인증제도다. 강원랜드는 리조트 영업장마다 에너지 목표 사용량을 정해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 60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2023년까지 준공해 리조트 난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아웃도어 신상 스니커즈 키워드는 친환경

노스페이스·코오롱스포츠 줄출시 재활용 소재 사용하고 기능성 높여

가볍고 편한 신발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스니커즈. 구두를 신어야 할 자리만 아니라면 하루 종일 스니커즈만 신고 살고 싶을 정도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와 코오롱스포츠가 SS(봄 여름) 시즌을 맞아 스니커

즈 신상품을 내놨다. 스니커즈의 장점에 아웃도어 브랜드 특유의 기능성을 더한 제품들이다.

노스페이스는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표방하는 스니커즈 '헥사 브이투'를 선보였다. 페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리사이클링 메시와 공장에서 재단하고 남은 가죽 조각을 재활용한 리사이클링 가죽을 겹겹이 적용한 '착한 스니커즈'다.

스타일도 눈에 쏙 들어온다. 노스페이스

의 스테디셀러 하이킹화 '헥사'의 측면 패턴과 신발끈 구조 등의 헤리티지를 어글리 무드로 재해석했다. 일상에서 스트리트룩, 애슬레저룩 등으로 활용하기 좋다. 아웃도어 브랜드가 만든 제품답게 하이킹, 가벼운 조깅 등 다양한 야외활동에서 신을 수 있다.

여기에 맞서는 코오롱스포츠의 스니커즈는 아웃도어용 테크 스니커즈 '무브'의 업그레йд 버전. 무브는 지난해 판매율 90%에 육박하는 등 코오롱스포츠의 신발 매출을 견인한 효자 제품이다.

코오롱스포츠의 등산화 기술이 아낌없이 녹아든 신발. 가벼운 아웃도어 활동으

로 등산에 입문하는 2030 세대가 늘면서 등산 엔트리 제품으로 확 났다.

무브는 기본적으로 스니커즈의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밋지화에서 얻은 영감이 반영돼 있다. '접지력의 명가' 비브람의 메가그립 아웃솔이 적용돼 있는데, 이번 시즌 제품에는 새로 개발한 미드솔까지 장착됐다.

무브 역시 친환경 제품으로 신발끈과 웨빙테이프 디테일에 페트병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소재를 사용했다. 이번 시즌에는 핑크와 마스터드가 추가돼 총 8가지 색상으로 나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4월 8일(금) 음력: 3월 8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자랑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다 나중에 강이 될 수도 있다.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경계방등을 삼가 하라. 기발한 모험으로 실리 달성을 획책하려는 기운이 강한 날이다.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래에서 큰 전수가 들어온다. 독실할 수는 없다.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강풍에 날아가듯이 하는 일이 허사로 끝나기 쉽다. 자중 자애하라.	부인이나 자식, 근친자로 인한 가정 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밖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우선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다. 가정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 가정의 화목하게 된다.	한낮의 암흑처럼 절정에 달해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쇠퇴의 그늘이 지르므로 겉은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지만 내부에는 격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되어 있는 때이다. 이런 때는 매사 초지일관한 자세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숙고해서 경계방등을 삼가야 할 때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계획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키면 좋다. 선배와 상의하라.	작은 일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큰일 중에서도 좌절되는 경우가 있다. 표면은 좋아보여도 내면은 진실성이 없으며 현재 무슨 일이나 분명치 않아 단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때다. 거래상대가 이쪽을 의심하게 되니 잘 설득시키기가 중요하다.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는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딱 막힌 상태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상대방과 완전한 의견과 방향을 달리하는 운기이다. 이럴 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대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 스스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면 타인의 도움도 합쳐져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어떠한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하늘의 기운을 크게 모아 초목을 양육하는 산을 나타내는 운기이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충실한 방침을 세우고 착수할 때이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결실이 온다.

오늘의 날씨			8일(금)		
서울 0/0	인천 0/0	춘천 0/0	6 19	7 16	2 21
강릉 0/0	대전 0/0	전주 0/0	7 22	4 22	5 22
광주 0/0	대구 0/0	부산 0/0	6 23	6 23	10 18
창원 0/0	제주 0/0	지역	7 20	10 20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00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임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인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